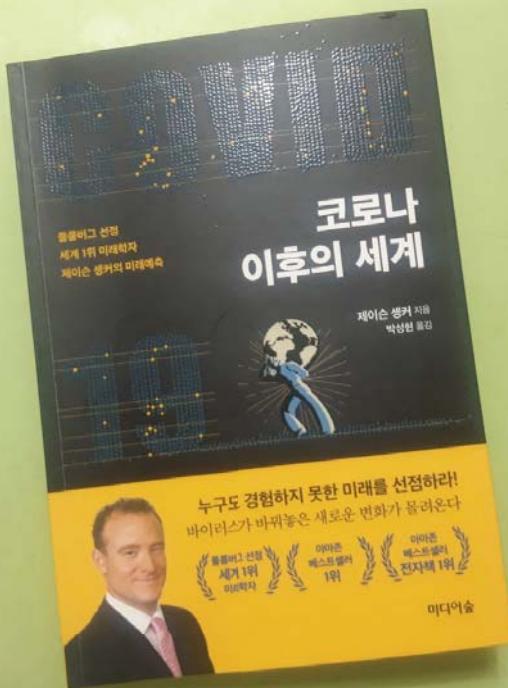


제이슨 셩커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읽고 (세상의 미래, 교회의 미래)



주상락 박사

애즈베리신학대학원 Ph.D. in Intercultural Studies(선교학, 전도학, 교회개척),
아현교회 전도목사, 서울신대 강사, 명지대 객원교수,
『기독교 사회적 기업가 정신』(공저, 2017),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101』(역서, 2018).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저술한 제이슨 셩커는 블룸버그가 4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한 세계 1위의 미래학자이다. 셩커는 ‘프레스티지 이 코노믹스’(Prestige Economics)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Futurist Institute)의 회장으로서, 주로 환율,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금 가격, 산업 철강 가격, 농산물 가격, 미국의 일자리 등 경제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는 미래학자이다. 그렇지만, 본서에서는 일자리, 교육, 에너지, 금융, 통화정책, 재정정책, 부동산, 농업, 공급망, 미디어, 국제관계, 국가 안보, 정치, 리더십, 여행과 헤저, 스타트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19가지 분야의 미래 변화를 예측한다.

필자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대표적인 미래학자이며 전도학자인 드루대학의 석과교수인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필자에게 “선교학자, 전도학자는 복음을 전하는 문화의 일선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그들의 삶 안에서 공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미래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미래의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삶의 전 영역에 전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의 삶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슨 셩커의 책은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나침반이 된다. 필자는 셩커의 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요약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비즈니스 분야 미래

제이슨 셩커는 기업의 회장으로서, 전체 19장 중에서 절반이 넘는 10장(일자리, 에너지, 금융, 통화, 재

정정책, 부동산, 농업, 공급망, 스타트업, 불황)에 걸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비즈니스 분야의 미래를 예측한다. 저자는 비대면 사회(uncontact society)에서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한 직종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 지식 노동자, 그리고 그 외 노동자 세 그룹으로 나눌 것이다(23).

‘필수 노동자’는 산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지식 노동자’는 초 정보화, 제4차 산업시대, A.I, 금융 산업을 이끌 새로운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산업 현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기에 사무실 밖에서 일한다. ‘그 외 노동자들’은 불행하게도 산업의 유동성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다. 저자는 향후 가장 주목받을 직업군이 ‘의료 분야’라고 강조한다. 의료 분야는 자동화 시대, 팬데믹의 위험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몇 안 되는 직업군 중의 하나이다.

쌩커는 재택근무가 에너지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예상한다(50).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통수단의 이용이 줄어 휘발유와 항공유 중심으로 연료의 수요가 줄었다. 많은 사람이 전기차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이 원유의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예상하지만, 저자는 재택근무가 석유 수요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5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뉴노멀’(New Normal)이 되어 화석연료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저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 분야의 변화에 주목한다. 코로나19로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했다(61). 향후 팬데믹의 여파는 금융

시장 리스크뿐 아니라 주택과 고용시장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쟁커는 ‘코로나 경기부양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둔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74). 가장 큰 문제는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도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medicaid), 사회보장제도(society security)로 복지 재원에 압박을 받고 있다. 코로나 경기부양법안은 미국 국가부채를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기본 급여를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이 퍼지고 있다. 이 담론 또한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미래의 뇌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경제 분야의 영역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다. 저자는 재택근무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므로 공간에 대한 선호가 변할 것을 예측하며 여섯 가지 큰 변화를 언급한다. ① 기업 사무실 수요의 감소 ② 자영업 가게 수요의 감소 ③ 주택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의 위험성 ④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 고위험성 ⑤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 ⑥ 물류 창고와 유통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99). 이 여섯 가지 전망은 예측 가능한 변화였지만 팬데믹 이후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코로나19로 농업 분야도 큰 영향을 받았다. 신선한 식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농수산 유통구조도 변화시킬 것이며, 실내 식품 공장, 실내 재배 시설, 실험실 배양 고기 등에 투자할 것이다(105). 미국은 농수산물뿐 아니라 휴지와 같은 공산품의 품귀 현상을 경험하며 공급망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경영학에서 거의 관심

이 없었던 ‘공급망’(supply chain)이라는 주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며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 공급망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식량이나 기본 물품의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다면 국가의 유지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나라가 경제, 안보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식품과 생산물의 공급망을 변화시키고 국가의 찬장과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스타트업은 코로나 위기 이전까지 성장하고 있었으나 팬데믹 이후 위기에 처해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시장 동향에 더욱더 민감하다. 의료, 기술, 교육 기술, 전자 상거래, 국가 안보 분야의 스타트업은 이 위기의 시기를 헤쳐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업종 스타트업은 쉽지 않은 미래가 예상된다(176).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성장에서 수익으로 우선 순위를 바꾸라’라고 조언한다(176). 향후 몇 년간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경제적 불황을 대비한다. 쟁커는 2001년부터 찾아온 경기 불황이 오래 간 것처럼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발 경제불황이 20년을 갈 수 있다고 예측한다(179). 저자는 호황기에 지금 괜찮으니 내일은 더 괜찮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갖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면한다.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재택근무의 증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절감,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확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184~185).

코로나 이후의 교육, 리더십, 환경 분야 미래

셍커는 3장에서 ‘교육의 미래’, 15장에서 ‘리더십의 미래’, 그리고 17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환경문제’를 다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강좌’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온라인 교육으로 학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학위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특별히, 저자는 교육의 세 가지 트랜드를 강조한다.

첫 번째 미래 교육의 트랜드는 교육길드 시스템이 해체되어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 IT 기술과 관련된 직원을 제외한 대학의 행정직원이 직업을 잃을 수 있다. 두 번째 트랜드는 교육의 민주화이다. 즉, 온라인 플랫폼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과 온·오프라인 혼합형 강의가 크게 성장할 것이며, 기술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한 대학들이 저렴한 온라인 강의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서 교육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 트랜드는 사용자 경험의 향상이다(36~37). 미래에는 홈스쿨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전하고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가 늘어날 것이다(48).

저자는 리더는 변화하는 미래에 일하는 방식에 잘 적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앞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리더는 생존을 위해서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제조

업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고, 경제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았지만, 배출가스 생성이 멈추며 환경은 향상되었다. 저자는 팬데믹 위기가 지나면 투자자의 생산설비 폐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여행 감소로 배출가스가 감소하는 것을 기회 삼아 환경보호와 환경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171). 미래에는 산업의 발전 때문에 유보했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변화 이슈가 크게 부각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정치·외교 분야 미래

저자는 12~14장(국제관계, 국가 안보, 그리고 정치)에 걸쳐서 정치·외교 분야의 미래를 다룬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과 중국의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 분야의 갈등이 빈번했는데, 중국발 코로나19는 두 초강대국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두 나라의 계속된 갈등을 예측한다.

미국은 바이러스가 창궐 시 필요한 호흡기와 의료용 장갑, 마스크 등이 국가 안보를 흔드는 필수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의료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팬데믹 사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여 발생한다면, 그 나라의 국가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저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기술, 보건, 의료, 식료품, 소비품, 여타 공급망 등을 강화하여 국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132).

코로나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국은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의 투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자투표도 검토되지만, 당장 미국 전역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큰 비용이 든다. 또한,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 투표 기록, 시스템 망, 개표 등을 보호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140). 장기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저자는 선거와 경제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 역사상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12명인데, 지난 100년으로는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허버트 후버, 포드 대통령 등 4명뿐이다. 이 4명의 특징은 선거전 실업률이 높았다는 것이다(144). 미국은 코로나19 때문에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선교적 상상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는 강연, 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관련 주제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생커의 책 대부분 예측 가능한 미래만을 다룬 듯 느껴진다. 또한, 저자의 나라인 미국의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 전 세계의 변화를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러나 저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미래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불어 넣어 주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필자는 생커의 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네 가지 키워드(변화, 비대면, 재택근무, 위기와 불황)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의 미래 목회를 꿈꾸어 본다.

변화

생커는 코로나19로 변화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변화는 큰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구약학자인 윌터 브루그만은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예언자적 목회의 과제는 우리를 둘러싼 지배 문화의 의식과 인식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 의식과 인식을 끌어내고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다”라고 언급했다. 평화 전문가 존 폴레더락은 『도덕적 상상력』에서 “도덕적 상상력은 현실 세계에서 도전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해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 변화의 시대에 교회, 목회, 그리고 선교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복음 중심적 ‘대안 의식’인 ‘선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비대면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콘텐츠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다. 필자는 이 말에 동의하며, 교육 분야뿐 아니라 교회 사역에서도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사역의 장을 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택근무

공간의 변화를 예측한다. 직장이 아닌 가정이 일터가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삶 속에서 깊이 있는 영성을 체험하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가정에서부터 존 웨슬리가 강조한 ‘교회 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e in ecclesia)를 실천해야 한다.

위기 및 불황

선교적 교회 전문가인 선교학자 조지 헌스버거는 “위기(危機)는 위험(危險 danger)과 기회(機會, opportunity), 두 단어의 앞글자를 합성한 말로,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여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며 불황의 시대이지만, 교회의 리더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담대한 항해사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나아가며, 선교적 기회를 찾아야 한다. (泉)